

미국서 현지 대학생 불자들 첫 모임

대학생 불자들 "독특한 경험" "새내기 불자에 꼭 필요"

'대학생 불교학회' 국내 불교계에서나 친숙할 것 같은 이 말이, 이제는 미국에서도 낯선 말이 아닌 것 같다.

미국 뉴욕 주 소재 로체스터 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캠퍼스 타임즈(Campus Times)는 10월 25일자 보도에서 "미국 대학 내에서 불교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지난 18일 처음으로 대학을 초월해 로체스터(미국 뉴욕 주에 위치한 도시)에서 전체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모임은 UCLA대학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명상 코디네이터' 매트 테신 스웨거(Matt Teshin Sweger) 법사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매트 법사는 "대학에서 명상을 지도하면서 소규모 동아리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 대학생 불자들이 안타까웠다"며 "그들의 신행의 영역이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로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이제야 그 첫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사회에서 대학은 지역 사회의 '문화·소통의 장'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지금의 대학생 불자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필수로, 지역 사회에 불교를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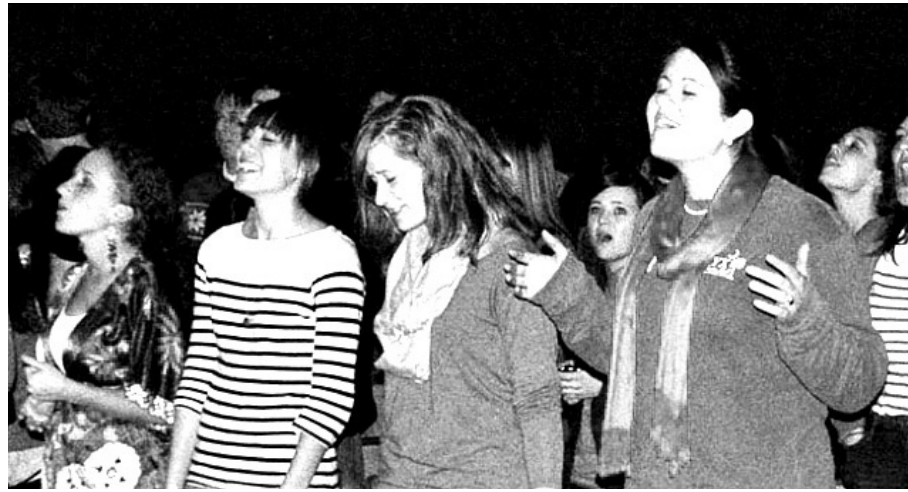
즉, 캠퍼스에서 싹트고 있는 대학생 불

자들의 동아리(meditation group)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구실을 독특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보인 것.

제이 그웬(20·데이비스 칼리지)은 "대학 친구들과 함께 명상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 항상 더 많은 도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고 말하며, 이번 모임의 깊은 의미를 전했다.

그웬이 이번 모임에서 자신의 '코끼리 목걸이'에 얽혀 있는 이야기로 다른 대학생 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웬은 베트남계 2세로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불교를 아는 것은 물론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며 불교와 명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코끼리 목걸이'는 당시 그웬의 어머니가 딸의 신행을 대견해 하며 건넨 선물이었다. 그 후 그웬은 더욱 신심을 내 신행활동을 했는데, 그 노력은 부모와 소통하고, 백인 사회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됐다는 것이다.

A. 맥캠벨(21·Rocester University)은 "미국 정신문화의 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곳 로체스터에서 대학생 불자들의 첫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는 게 기쁘다"며 "첫 모임에 동참한 우리들은 '꽃이 많고, 유독 흐린 날이 잦은 도시'에서 깊은 사유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다른 환경의 불교 활동



미국 대학생들은 대학 내 불교동아리 활동을 벗어나 타대학 불교동아리 회원들과 교류를 하며 신행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사진은 미국 대학의 불학생들이 10월 18일 로체스터에서 가진 법회 모습

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매트 법사와 함께 '로체스터 대학생 불자 모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알란 캄브라 법사는 "불교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주변의 검증과 받아야 발전하는 것"이라며 "로체스터 모임은 소규모의 모임으로 점진된 대학생 불자들이 처음으로 많은 대중과 함께 불교를 생각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가장 뜻 깊었다"고 말했다.

2년전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다는 베티 에버슨(20·UC버클리 대)은 "평소 불교라는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았다"고 말하고 "이번 모임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불교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저와 같은 대학생 새내기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테신 법사에 따르면 동시대 대학생 불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불교 수행은 '묵언 수행'이다. 그는 "대학생 불자들은 강의 중간 중간 짧은 시간이지만, 일시적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몰두하고 있다"며 "이를 실천한 대학생 불자 대부분은 물리적 감각으로 생기는 어떤 혼란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캠퍼스 타임즈는 "로체스터 모임이 대학생 불자들의 신행을 키우고, 불교 실천의 폭을 넓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고전문헌부터 탄트라까지 섭렵

세계의 불교학자(38)

하루나가 아이작슨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



하루나가 아이작슨(Harunaga Isaacson·47)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는 세계 인도학 불교학계에서 촉망받는 학자다. 아이작슨 교수는 1965년 일본 시코쿠 지방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이작슨 교수는 어릴 적 일본에서 불교를 접하면서 자랐다. 그러다 가족들과 네덜란드로 옮겨 초등학교를 다녔고 유럽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아이작슨 교수는 인도 고전문헌부터 티베트 탄트라 불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문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5년 그로닝겐 대학에서 인도학을 전공한 후 유럽 각지의 석학 밑에서 훈련받았다. 1995년 웨더 교수와 베를린 교수를 지도교수로 해서 바이세시카 철학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옥스퍼드에서 샌더슨 밑에서 탄트라에 대해 5년간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다. 그 후 함부르크 대학의 점입강사를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남아시아학과 조교수를, 현재 함부르크 대학에서 고대인도학과 교수로 임명돼 교편을 잡고 있다.

아이작슨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도의 정통철학체계의 하나인 바이세시카 학파의 중심경전의 비판적 편견과 이에 대한 변역을 다뤘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의 학파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인도의 고전시(詩)와 푸라나라고 하는 담시(譚詩)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굽타 왕조의 유명한 시인 칼리다시의 <라구밤사(Raghuvam?)>에 대한 현존 최고(最古)의 주석을 비판적으로 교정·편찬하고 있다.

1995년 박사논문 취득 후 그는 탄트라 불교로 관심을 돌린다. 탄트라 불교가 인도종교와 티베트 불교,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영역이었지만 현대 불교학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세기 이래 인도불교에서 탄트라라는 주류로 등장했으며, 이런 경향은 티베트 불교로 그대로 전해진다.

아이작슨 교수는 "추정에 따르면 현존하는 사본의 3분의 2 이상이 탄트라와 관련돼 있다. 실제 거대한 분량의 사본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대부분이 교정·출판되지 않았다"며 탄트라 불교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아이작슨 교수는 인도학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본을 읽은 사본연구자 중 한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사본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교사본이 존재

하며 또 어떤 사본이 남아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최근 아프간에서 발견된 초기불전의 사본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티베트 불교사본이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도 사본이 발견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함부르크 대학 인도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팔-독일 사본보존 프로젝트'에서 보다 많은 자료들이 새로 발굴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스스로를 산스크리트 문헌학자(sanskrit philologist)로 자처하기도 한다. 그는 불교 산스크리트 문헌뿐 아니라 인도 정통학과 문헌까지 다룬다.

범어-티베트어도 정통

고대 문헌 이해 수준 탁월

산스크리트 문헌학자라 자처

아이작슨 교수는 "좁은 관심의 영역에 자신을 묶어두지 말고 다른 인접분야의 문헌도 다양하게 섭렵해야 한다"며 "비록 연구자의 관심이 주로 인도불교에 향하고 있을 때에도 불교문헌에만 국한해서 독서해서는 안되며, 또 철학적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서 시와 같은 다른 분야의 문헌을 완전히 도외시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 시(詩)는 불교도이든 비불교도이든 산스크리트를 사용했던 모든 인도의 학자들이 읽고 훈련받았던 분야이기 때문이다.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아이작슨 교수는 "약 15년간 후기 인도의 문헌, 특히 불교 탄트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 특히 헤마즈라 탄트라를 시련한 요기니 탄트라에 중점을 두어 연구할 계획"이라며 "그리고 불교 탄트라와 밀접히 연관된 인도의 시바주의의 여러 문헌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푸라나 편집 작업과 라구밤사 주석본의 비판본을 내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년에는 보다 제가 사랑하는 인도의 고전시 분야를 연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천왕상, 골동품 시장서 만들어진 모조품"

중국대 바이어 교수, 티베트 운석 사천왕상 모조품 주장

나치 독일 친위대 탐사대가 1938년 티베트에서 강탈한 1000년 전 운석을 조각해 만든 사천왕상이 20세기에 만들어진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美 인터넷신문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는 10월 25일(현지시간) "불상이 조각된 운석은 니켈과 철 성분이 풍부하며 1만 5000년 전 시베리아와 몽골 국경 지역에 떨어진 운석의 파편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이 운석 불상은 티베트 불상의 모조품들이 갖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불상이 모조품이라는 것은 불상전문가인 중국대 불교학부 아킵 바이어 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바이어 교수는 최근 발표한 온라인 보고서를 통해 "모조품의 특징으로 불상이 신고 있는 신발은 유럽형의 신발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승복 대신 바지를 입고 있으며, 관 모양의 대는 티베트와 몽골의 전통 의상과 다른 형태"라며 "또 티베트나 몽골 불상에서는 볼 수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천왕상이 모조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킵 바이어 교수는 "탐험대를 연구한 독일 역사학자 이스턴 엔젤하트는 '이 불상이 나치의 손에 의해 독일로 반입되지 않은 것 같다'고 나에게 말했다"며 "이 불상이 골동품 시장이나 나치 기념품 시장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탐험대 이 아기는 불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없는 수업을 그리고 있고, 한쪽 귀에만 귀고리를 하고 있는 것도 매우 특이한 것이다. 불상이 된다고 있는 말로도 고대 티베트 불상이 입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입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분신자살자 신고하면 8천달러 주겠다"

티베트인 3명 잇따라 분신자살...中, 달라이라마 비난

중국 서부 간쑤성에서 티베트인 3명이 잇따라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망명 중인 달라이라마를 직접 거론하며 선동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티베트운동'은 간쑤성 사허현 라브랑 수도원 근처에서 50대 후반의 농부 도르 제 린첸씨가 10월 23일 분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사허현 라브랑 수도원에서는 지난 22일에도 50대인 돈뚱씨가 중국의 억압적 지배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20대 티베트 남성 라모 키예브씨가 사허현에서 해외 망명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귀국을 요구하며 분신했다.

국제티베트운동은 "모두 중국의 강압적 지배에 항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달라이라마 망명정부가 분신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총레이(洪磊) 대변인은 10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티베트인 분신

사건은 대부분 달라이라마 집단의 선동과 관련이 있다"며 "조국을 분열시킬 목적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분신을 선동하는 달라이라마 집단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변은 "티베트는 현재 빠른 발전 단계에 있고 인민 생활에서 중요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티베트 인민들은 현재의 아름다운 생활을 귀중히 여길과 동시에 티베트 독립 세력의 파괴 활동을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티베트인 분신 사건의 대비책으로 중국 당국은 티베트인들의 분신 계획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중국 서부 간쑤성의 지방당국은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8000달러의 포상을 주겠다"며 "최근 발생한 분신 사건에 대해 믿음직한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3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전했다. 이어나 기자

반야동자
3,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 이상 @ 1,000원
- 규격: 25.8cm x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30cm x 63cm ★국판3절
- 매수: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26cm x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 800원
- 규격: 9.5cm x 13.4cm
- 매수: 18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 600
- 규격: 8.9cm x 9.5cm
- 매수: 16장

※등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릭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 서적, 사경지, 연등, 염주, 향, 양초, 다포, 4.8용품, 백중용품]